

# 은혜받는 비결 중의 비결

## 마음 문을 연 상태에서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 받게 돼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 빛보다 무량대수 배로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자가 점령을 할까요, 느린 자가 점령을 할까요? 빠른 자가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 이기신 하나님도 물질 속 하나님 영에게는 힘과 능력 줄 수 없다

태초에 하나님의 빛이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완성의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마귀 옥에 갇힌 모든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하나님이 모든 마귀를 박살시키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들을 석방시키려면 마귀 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야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받은 그 하나님이 에워싸고 있는 마귀를 부수고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여지없이 죽여 버려야 마귀 옥에서 석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산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이 있고 그 결정체는 마귀의 영이 에워싸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완성의 하나님께서 산소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할 수 없어요, 없어요? 부여할 수 없어요, 에워싸고 있는 마귀를 죽이기 전에는 힘과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를 죽이면 생명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게는 힘과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사람 속의 하나님의 영에게는 힘과 능력을 부여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영에

는 힘과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려면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마귀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마음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마귀요, 사망의 영이요, 죄의 영이므로 내 생각을 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마음, 영생의 확신을 갖는 마음을 가져야 완성의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 사람에게 힘과 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시간 말씀을 하지만 똥 위에는 똥파리가 와서 앉고, 꽃 위에는 벌이나 나비가 와서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영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도 같이 멸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기 전에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를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단계

하나님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순서와 단계



구세주 조희생남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해방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안 가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마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고로 그 하나님의 영에게 힘을 줄 수가 없고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라”,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

을 갖는 순간 바로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거죠? 바깥에 나와 있을 때에 이기신 완성의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접촉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완성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생명력을 전달해 줘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마귀를 이겨야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은혜 연결이 안

되면 호흡을 멈추고 은혜 연결 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매달렸다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생수 연결이 강하게 되면서 마귀의 영을 여지없이 멸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점점 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겨야 구원인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나라는 의식이고 나를 이겨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려면 내 생각을 항상 꺾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끌려다니면 맨날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 마귀의 영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순간 생명이 죽고, 생명이 죽는 순간 몸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영생의 비결: 반대생활

그러므로 이긴자가 되려면 나를 완전히 이기는 생활, 나라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양심)의 주장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으면서, 내 생각을 여지없이 짓기하면서 생활을 해서 나라는 생각이 1초라도 움직이려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리제단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서 나를 이겨야죠?

내가 집에 가고 싶을 때에는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죠? 그렇게 해 봤어요? 집에 가고 싶으면 안 가는 생활을 해야 나를 이기는 생활이요, 나를 꺾는 생활이죠? 이 사람이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밥을 안 먹었다고 했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졸리면 잠을 안 잤어요, 이 사람은 졸리면 잠을 안 자고, 일 하기 싫으면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했죠? 일을 하다가 쉬고 싶은 생각이 나면 안 쉬었고,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재미있게 일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쉬었다고 그랬죠? 어떤 형제가 나를 미워하면 무척이나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했죠? 미워하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을 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죠?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게 죄를 지으려면 질 수 없는 비결이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도 닦는 비결을 모르는 자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기고, 죄를 지으려면 질 수 없는 방법을 모르는 자가 무슨 교주 노릇을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웃기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되는 비결, 영생을 얻는 비결이 지금 말씀한 대로 반대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성의 이긴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죠?\*

1991년 9월 4일 말씀 중에서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작용

지금까지 영혼과 육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생리와 심리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육일체는 면밀하게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심령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영육분리의 그 증거로 거론하기 때문이다. 영혼과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곧 심령과학인데, 죽은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초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심령현상은 엄연히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하여 집중 조망해 보자.

심령과학자들의 말처럼 반드시 육체와 동떨어진 영혼이나 사후세계를 설정해야만 심령현상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고만 질 수 있는 생생한 '피의 원리'에 입각해서 심령현상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 호에서 설명했지만 피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면 심령현상들은 신혈

적(神血的)차원의 정신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정신작용은 육체인 정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공중 외부에서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신비한 정신작용(심령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육분리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심령현상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고 그에 대한 진실개임을 파헤쳐 보자.

**첫 번째 유형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다는 '유령의 출현현상'이다.** 어떤 사람이 유령이나 도깨비를 직접 보았거나, 사람이 죽을 때 꿈에 나타나 알린다거나, 죽은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현상(심령사진, 영물사진)이 있다.

이에 대해 『유령의 자연사』 저자 로저 클라크는 - 유령은 '감정의 영역'이다. 즉 유령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고 싶은 사람들의 환상과 열광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유령'이

라는 그림자에 놀라 경기를 일으키고 뒷걸음질 친 것이다. 고스트 헌터(Ghost Hunter)의 원조는 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의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악령에 맞설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 1837~1901년)에 강신술, 교령회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유령을 불러들이는 영매는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당연히 유령 이야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유령이 목격되는 장소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유령을 내세워 돈 좀 벌어보려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다. -라고 말한다. '유령출현현상'은 영육분리의 강력한 증거인가?

**두 번째 유형은 영매나 무당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행해지면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발인되는 현상이다.** 초자연적(영적) 존재와 인간을 직접 매개할 수 있는 인물, 개인적, 사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진 인물과 그 능력을 이용해서 주술·종교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 존재한다. 영매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자신 스스로를 통상의 식의 변이상태에 두고, 그 사이에 초자연적 존재가 당사자의 신체 중에 들어가서, 인격이 초자연적격(영격)으로 전환한다고 보는 점에 있다. 영매나 무당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과 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자이다. 선령(善靈)·악령(惡靈)과 직접 통하며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 원시적 사머니즘의 한 형태로서, 인간과 신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직업적으로 맡는다. 인간의 모든 화복(禍福)은 신의 뜻에 따라 좌우되므로, 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당들을 통하여 신과 접촉하여 재난을 미리 탐지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이러한 접신(接神)행위가 영육분리의 강력한 증거일까?

**세 번째 유형은 빙의 현상이다.** 빙의란 일종의 영적인 현상으로 제3의 영이 씌웠다는 것인데 귀신들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원래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과거에는 영적인 현상 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는데, 인간의 정신적인 장애허 영적인 현상으로 보고 굿과 같은 무속적인 방법 또는 심령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것을 미신 취급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영적인 빙의현상이나 영적인 원인에 의해 병이 드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유체이탈(離魂脫魂)현상이다.** 유체 이탈 경험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빠져나온 상태에서의 감각 체험을 일컫는 말이다.

유체이탈을 영육분리의 강력한 증거로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음의 사례는 유체이탈이 뇌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신경외과 전문의인 올라프 블랑케 교수는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까다로운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각한

뇌전증을 치료하려면 잦은 발작의 진원지부터 찾아내야 했다. 교수는 일단 진원지를 찾으려고 전국 몇 개를 경막 밑에 연결했다. 뇌를 둘러싼 단단한 막인 경막의 여러 부위에 전기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였다. 뇌에는 통증 수용기가 없기 때문에 환자는 내내 깨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측 측두-두정 접합' 영역을 살짝 자극하자 환자가 추락하며 가라앉는 느낌을 느낀다고 했고, 몸이 뒤틀리는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더 강한 자극을 주자 천장 근처에 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니 유체 이탈을 유발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교수는 이후 『네이처』에 발표한 그 유명한 논문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유체 이탈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뇌 영역을 발견했다."

심령현상은 육체와 영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된다. 궁극하다면 다음 호를 기대해 보시라.\*

김주호 기자